

내가 사랑한 거짓말

아침을 열며

이승현
강진백운동전시관장



글썩 한 점이 210억원에 팔렸다는 뉴스에 귀를 의심했다. 중국 명나라 중기의 철학자이자 정치가로 알려진 왕양명의 시서(詩書) 작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경매 시장에서 1억 900위안에 낙찰되었다는 인터넷 보도를 보고 가짜뉴스나 오보라고 생각했다. 백운동 전시관에 있는 추사며 다산, 정명, 일중, 학정선생 등의 서예 대가들의 작품 값과 비교해 보자니 터무니 없는 가격에 놀라고 부러웠지만 믿기 어려워 기사 검색을 더 해보니 출처가 분명한 사실이었다. 정말로 공공한 것은 따로 있다.

지극연 판사가 립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일까? 민주당과 사법부 간 진실 공방에 세상 사람들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하지만 직접 확인 방법은 없다.

이재명 재판을 자신이 마무리해버리겠다고 했다는 대법원장의 말은 소문대로 사실일까. 의사 증원은 누구의 주장이 합리적인 것일까? 부정선거는 있었던 것일까? 세상의 부귀영화는 모두 누리고도 부족해 자신도 호남사람이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목 놓아 외친 한덕수의 말은 진심일까? 거짓말에 징용되고 계몽되고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단 말인가? 공부 잘하고 그똑똑한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은 왜 거짓말의 앞잡이자 선동자, 배후조종자가 되었을까? 수많은 거짓말 중에 ‘호소웅 계엄’은 단연코 ‘거짓말들의 왕’이다. 당대 최고의 거짓말이다. 그 계엄과 탄핵, 파면, 대선을 치루면서 거짓말 쓰

나미가 나라를 덮치고 있다. 거짓말로 그리고 진위를 따져보는 일로 나라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얼마 전 장석남 시인이 보내준 시집 ‘내가 사랑한 거짓말’처럼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내가 사랑한 거짓말로 자서전을 꾸민다. 나는 하나의 정원 한창 보라색 거짓말이 피어 있고 곧 피어날 붉은 거짓말이 봉오리를 맺고 있다. 거짓말을 옮기고 물을 준다. 새와 구름이 거짓말을 더듬어 오가고 저녁이 하늘에 수수만년 빛을 모아 노래한다. 어느 날 거짓말을 들추고 들어가면 나는 끝이다. 거짓말 내가 사랑할 거짓말 거짓이 빛나는 치장을 하고 거리를 누빈다.’

거짓말이 정치, 법조, 군, 종교, 언론, 대통령 주변 등을 누비고 다니고 거짓말 용병들은 옮기고 물을 주고 키운다. 거짓말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키우는 양묘장도 있다. 흔탁하고 위태롭고 불안한 세상이다. 계엄과 탄핵, 대선을 거치면서 거짓과 선동이 극에 달하는 것 같다. 유튜브나 정치세력들, 이익집단들에게 거짓말이 하나의 상품이 되고 공개적으로 사고파는 시대가 되었다. 손톱만한 거짓말부터 개인을 파탄내거나 정권을 거머쥔 거짓말, 나라를 거덜 내는 거짓말을 수 없이 목도한다. 제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 피해자는 누구란 말인가?

‘진실이 신발을 신는 중에 거짓은 지구의 반을 들고 있다.’는 영국 속담처럼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고 소셜미디어가 폭발하는 요즘시대에 가짜뉴스, 대중조작과 대중선동이 더욱 커지고 빠르고 교묘해졌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국민저항권’으로 세뇌된 서부지법 난동사태는 가짜뉴스와 대중조작의 대표적 사안이다. 쏟아지는 정보와 선전에 일반사람들은 무

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사실 불가능하다. 사고를 친 사람들이야 살기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쳐도 그것을 가려내야 할 심판들이 동조하고 은폐하고 나팔수가 되고 있으나 흔탁해질 수밖에 없다.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이른바 ‘확증편향’이나 잘못된 이미 지나 선입관에 사로 잡혀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는 ‘정박효과’ 때문이라고 개인들에게 원인을 돌리지만 그 보다는 정치인이나 법원, 검찰, 경찰 같은 심판자들이 역할을 못한 책임이 더 크다. 국민들이 가장 신뢰해야할 공직자나 공직기관의 말을 사실로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 도의와 정직, 헌신이라는 사명과 덕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사실만을 보도한다는 언론보도를 사실로 믿는 국민도 별로 없다. 우두머리에 따라 사실과 진실이 달라진다. 국민의 지탄을 받고 조직의 존재이유를 잃어가면서도 스스로 쇄신이나 ‘정풍운동’을 하는 집단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자주성을 상실했으니 강제가 필요하다. 부패한 기관이나 우두머리에 대한 합당한 청산과 강력한 윤리와 책임을 갖춘 조직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이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다.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먼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새 정부가 될 것이다

사족으로 210억에 팔린 서예작가인 왕양명(1472~1528)은 양명학(陽明學)의 창시자다. 양명학은 앎과 실천은 하나라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했다. 양명학은 단순히 이념이나 철학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식과 행동이 분리될 수 없으며 참된 앎은 반드시 실천을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바른 인성이 양육되지 못하는 시대, 말만 무성하고 책임지지 않는 시대에 양명학을 시대 정신과 정부의 국정철학으로 삼는다면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맑아질 것이다.

社說

이재명 ‘국민 모두의 대통령’ 약속 지켜야

‘낙후된 호남’ 위한 배려 필요해

대한민국 제 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확정 이후, 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을 이양받았고, 4일 오전 11시에는 국회에서 5부 요인과 정당대표,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가졌다. ‘누구를 지지했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에 기대를 걸어본다.

이 대통령 앞에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정치 구조 개편과 권력 분산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분권 등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시급한 현안이다.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 해법, 성별, 세대, 이념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해결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방위비 압박부터 미·중간 경쟁과 북핵문제, 한·일과 거사 등 복잡한 외교안보 현안 속에서 이 대통령이 내세워 왔던 ‘실용 외교’

의 밑그림도 그려내야 한다.

소멸 위기에 놓인 광주·전남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광주를 인공지능 시범도시로 만들고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 공항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나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 도시,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도 그가 꿈꾸는 광주의 모습이다. 전남에 대해서도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개선,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육성,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허브 조성 등 7대 공약을 내놔다. 적박한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살리고 변화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이다.

앞으로 5년, 이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국정 방향을 전체 국민의 희망에 두기를 기대한다. 소통과 협치를 이뤄내고 평소 강조했던 지역 균형발전과 광주·전남의 변화도 모색해야 한다. 낙후된 호남을 살리기 위한 인사와 예산 등의 배려도 필요하다. 이제 시작된 ‘이재명 시대’의 성패는 초심을 잃지 않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21년만에 ‘140만 명’ 무너진 광주 대안 없나

지방이 살아야 나라도 살아나

광주광역시 인구가 21년 만에 140만 명이 무너졌다는 소식이다. 인구감소는 지방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여 년 이어져온 ‘140만 도시’라는 상징적 지위가 사라지면 도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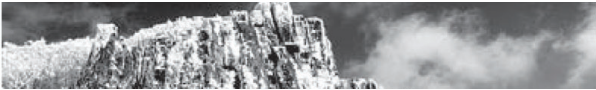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5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시 인구는 139만9880명으로 전담보다 947명 줄었다. 불과한 달 사이에 1000명 가까운 순감소가 발생하며 지난 2004년 이후 지켜온 ‘140만 명’이 무너졌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 147만5000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1만815명이 빠졌고 올해는 5개월 만에 약 8500명이 줄었다. 감소속도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순유출 인구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

다.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와 함께 가파른 청년층 유출이다. 광주시는 최근 한 달 사이 20~30대 인구가 814명 줄었다. 이는 전체 감소인원인 1651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지난 2013년 30.9%였던 청년인구도 2023년 26.8%로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2023년 기준 타시·도에서 광주로 전입한 청년이 2만8282명에 불과한데 반해 광주에서 타시·도로 전출한 청년은 3만4669명에 이른다. 전출 사유도 ‘직업’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나 주거 기반을 찾지 못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다.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지방대 혁신, 광역권 중심 메가시티 전략 등을 공약으로 내놔다. 국토균형발전이 지역 격차와 소멸을 해결하는 국가 근본 과제라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새롭게 시작된 이대통령의 시대, 인구절벽과 국가소멸을 막는 특단의 대안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말처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서석대



장미는 신비로운 꽃이다. 장미처럼 인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꽃은 흔치 않다. 이에 얽힌 신화나 전설도 수없이 많다. 로마신화에선 불사(不死)의 꽃으로 불린다. 태양신 아폴로는 죽은 숲의 요정 ‘넵트’에게 생명의 빛을 내려 장미로 되살렸다. 그 때 비너스 신은 미(美)를, 바커스 신은 향기를, 꽃의 여신 플로라는 붉은 빛깔을 내렸다. 넵트를 무척 사랑한 플로라는 ‘차가움’을 암시하는 푸른 빛은 내리지 않았다. 순결의 백장미, 정열의 홍(紅)장미는 있어도, 푸른 장미는 없는 ‘이유’다.

장미는 사랑과 아름다움, 환희의 상징이다. 이집트에선 각종 의식에 장미가 많이 쓰였다. 연회 때도 주변을 장미로 장식했다. 포도주에 장미꽃잎을 띄워 향취를 즐겼고, 고기에 장미향유를 뿌렸다. 클레오파트라는 연인 안토니우스를 맞아 성대한 잔치를 베풀 때, 자신을 기억할 상징으로 장미를 사용했다. 연회 바닥에 약 1m 높이의 장미를 깔았다. 네로 황제는 축하연 때 장미로 목을 장식하고 장미관을 썼다.

장미는 행운의 꽃이기도 하다. 유럽에서는 장미가 피는 곳에는 행운이 찾아온다고 했다. 분만의 단계에서는 순산의 상징이 됐다. 스위스에는 묘지를 ‘장미원’(Rose

garden)이라고 부른다. 이탈리아에선 묘지 앞을 지날 때 장미를 묘비에 던진다. 이런 풍속은 중국과 튀르키예에도 있다고 한다. 런던 등 유럽의 도시에서는 시 회의실 문에 장미를 걸어나 비밀을 지키는 심벌로 삼았다. 장미는 색깔에 따라 꽃말도 다채롭다. 붉은 장미는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노란 장미는 우정과 완벽한 성취, 분홍색 장미는 사랑의 맹세, 하얀 장미는 순결함, 주황색 장미는 첫사랑의 고백을 뜻한다.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이나 우정을 나누고, 서로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장미꽃을 선물하는 이

유다.

6·3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장미가 한창인 시기에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렸다. 하지만 장미의 꽃말과는 달리 ‘역대급 네거티브’로 극한 분열을 낳았다. 국가가 위기다. 국민 통합이 절실하다. 내란 종식과正道 통합으로 가는 길이 돼야한다. 야당이 함께 하도록 대화해야한다. 그래서 실종된 협치를 복원해야 한다. 개헌도 민주주의도, 민생 경제 회복도 협치해야 가능하다. 그 길, 맨 앞 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서야한다. 협치의 의지를 담아 장미꽃 한 다발을 야당에게 보내주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려 본다.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전일보

@jnlibo

전일보 인스타그램

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전일보
E-Mail : jebob@jnlibo.com



서석대